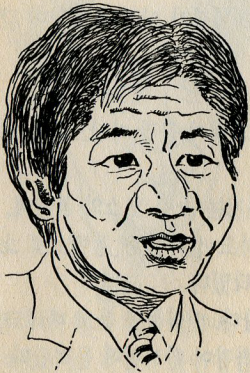


# 매 맞는 노동자의 희망

노무현 / 국회 의원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선 노동자 여러분들께 글로써나마 큰절을 올린다.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요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않고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이란 운 좋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처럼 몸뚱이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행복한 삶, 우리의 운명은 남

의 손에 맡길 수 없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작업복 입고 일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녁 시간과 방이 있고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책이라도 한 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생활, 못한 애비 소리 안 듣게 학비 걱정,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살 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시기와 질투가 없고, 이 눈치 저 눈치에 사팔뜨기 안 되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회사 다녀요.’가 아니라 ‘나는 노동자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생활을 찾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복을 찾아 나가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활동을 하면서 믿음 있게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 나가는 해방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 조합 활동을 해 본 사람은 느낄 것이다. 노동 조합이 결성되었을 때의 그 환희, 어려움을 뚫고 손을 맞잡으며 우리의 모임을 꾸려 나간다는 그 가슴 뚫듯함, 단체 협상을 마무리짓고 사장과 노조 위원장의 억센 손이 악수를 나눌 때, 우리도 똑같이 평등한 인간이라는 그 해방감에 벽차게 가슴이 뚫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방감을 계속 간직해 나가기에는 아직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너무

두터운 것 같다.

무진년에 무진 애를 먹은 노동 조합은 기사년에 기사 회생한다는 기사년인지, 기를 쓰고 노조를 죽이려는 기사년인지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 온다.

공권력 투입에 의한 직장 폐쇄와 노조 간부 구속,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과 회사측이 합세한 집단 테러 사건, 미국인 기업체인 모토로라에서의 구사대 폭력 등. 밥 먹을 땐 개도 안 때린다는데, 자기 밥 찾는 노동자를 때리고 밥그릇인 노조마저 깨려 하고 있다. 그 이유로 폭탄을 만드는 방위 산업체인 풍산 금속 노동자들의 극렬 행동과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군경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말을 들었을 때, 노동자를 때도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회사측의 안전 장치 미비로 폭탄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는 수없이 많았어도 노동자들이 폭발물을 들고 나와 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극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항거는 해도 누구에게 애매한 피해를 입히는 경솔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한편으로 약속해 놓고 정부는 구속 영장도 없이 전경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연행하였다. 참 기가 막힌다. 또 현대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노동자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회사와 정부, 언론은 노·노간의 싸움이라고 몰아 붙였다.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잘 싸운다는 인상을 풍기려는 것이었다.

구사대 폭력이 진정으로 노·노간의 싸움인가?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모토로라에서는 얼마 전 미국인에 의한 길 가던 임산부의 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다시 미국인 기업에서 조합원이라고 여성 노동자가 폭행을 당해 유산을 하였다는 사실에 민족적 격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이 땅에서 구사대 폭력을 추방하자.

푸대접받는 노동자의 삶도 억울한데, 회사측의 사주를 받아 양심을 팔고 공권력과 결탁해서 자행되는 대리 싸움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사악한 모든 모를 물리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 🐘